

産卵鷄 부화장은 감소하고 육용계 부화장은 증가

— 日本 농수산부 가축위생과 공표자료를 中心으로 —

노 용 덕
(부국사료(주) 전무이사)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이웃 일본의 부화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대개의 산업이 그러하듯이 양계산업도 일본의 발전 과정과 우리의 발전 과정이 유사하므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는 참고가 될 수 있다.

최근 일본 부화장의 현황을 일본 농수산성 공식통계를 통해서 살펴본다.

일본 농수산성 가축생산과는 가축개량관계자료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나타난 양계관계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8년 2월 1일 현재 조사결과 종계업자의 수는 1,515戸(전년대비 84.7%)이며 부화업자의 수는 393호(전년대비 93.8%)이며 이중 등록부화업자는 363호(전년대비 95.3%)로 우리나라 허가부화장수 316戸와 비교하여 47戸가 많으며 우리나라의 무허가 부화장을 감안

하면 부화장 수에 있어서는 일본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일본의 산란계 부화업자는 145戸(전년대비 79.2%)로 전년도 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부로일러 부화장 수는 187戸(전년대비 103.3%)로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있다.

산란계와 부로일러 겸용부화장은 61戸로(전년대비 107.0%)이다. 또한 종계수수는 산란계가 104만 9,490수로(우송 합계) 전년대비 95.7%로 수수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중 ♀의 수수는 95만 5,303수로 전년대비 87.1%이다.

육용종계는 411만 7,804수(우송 합계)로 전년대비 106.6%로 증가하였고 ♀의 수수는 370만, 279수로 전년대비 107.2%로 나타나 있다

기타 純粹種이 325万 4,667수(전년대비 88.6

%)로 총합계 842만 2,161수(전년대비96.3%)로 종계의 수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채란계의 경우 4-5개 대형부화장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여 지방의 중소 부화장이 육용계 전용부화장으로 변천하는 것은 일본의 예와 유사 하다고 보겠다.

종계업자의 동향

종계업자의 수는 1978년 2월 1일 현재 1,515戶이며 18년 전인 1960년도의 40,555에 비하면 3.7%에 불과하며 1965의 20,887호에 비하면 7.3%에 해당하고 1970년도 7,518 戶에 비하면 20.2%, 1975년도 2,227호에 비하면 68.0%로 매년 종계수수의 증가에도 종계장의 수수가 크게 감소하에 점차 대규모화되고 있다.

일본의 종계규모별 사육현황

1978. 2. 1 현재

규 모 별 호 수	전년대비	구성비
500 수 미 만	117호 41.9%	7.7%
500~ 1,000수	213 95.5	14.1
1,000~2,000수	354 77.8	23.4
2,000~5,000수	504 108.9	33.3
5,000 ~ 1만수	120 70.2	7.9
1만 ~ 2만수	104	6.7
2 만 수 이 상	103 93.6	6.8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000~5,000수의 종계업자가 전체 종계 사육 수수의 56.7%로 가장 많고 만수이상의 종계장은 13.5%에 그치고 있다.

1) 산란용 종계업자

산란용 종계업자의 수는 465호로 전체 종계업자의 30.7%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규 모 별 호 수	구 성 비
500수~미만	78호 16.8%
500~1,000수	71 15.3
1,000~2,000	84 18.1
2,000~5,000	105 22.6
5,000~10,000	50 10.8
1만 ~2 만	47 10.1
2 만 ~ 5 만	28 6.0
5 만 이상	2 0.4

2) 육용 종계업자

부로이러 종계업자의 수는 1,015호로 전체 종계업자의 67%이며 그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규 모 별 호 수	구 성 비
500수 미만	39호 3.8%
500 ~ 1천수	141 13.9
1,000~2,000	267 26.3
2,000~5,000	393 38.3
5,000~1만	68 6.7
1만 ~ 2만	50 4.9
2만 ~ 5만	45 4.4
5만수 이상	12 1.2

부화업자의 동향

1978년 2월 1일 현재 부화업자수는 393호이며 1960년 1,471호의 26.7%로 약 4분의 1로 감소하였고, 1965년은 1,312호(등록부화업자는 1,136호)로 30.0%이다.

1970년은 917호로(등록부화업자 784호) 42% 1975년은 486호로(등록부화업자 458호) 80.9%로 부화장수가 70년에서 75년 사이에 급격히 감소 하였다

78년도의 393호 부화장의 입란능력및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규모별 부화장수 78.2.1 현재

규 모 별	호 수	전년대비	구 성 비
2만개 미만	15호	65.2%	3.8%
2만 ~5만	36	97.3	9.2
5만 ~10만	45	90.0	11.5
10만~20만	87	87.9	22.1
20만~50만	136	95.8	34.6
50만~100만	59	115.7	15.0
100만 이상	14	82.4	3.6

위의 표에서 보면 20~50만 입란 규모의 부화업자가 전체의 3분의 1로 가장 많고 5만에서 100만 규모가 83.2%를 점하고 있으며 2만이하와 100만 이상을 감소하고 있다.

1) 산란용 부화업자

산란계 전문 부화업자가 145호로 전체의 36.9%이며 77년의 180호 보다 35호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80.6%로 거의 20%나 감소 하였다. 규모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규 모 별	호 수	구 성 비
2만란 미만	9호	6.2%
2 ~ 5 만	23	15.9
5 ~ 10만	19	13.1
10 ~ 20만	31	21.4
20~ 50만	44	30.3
50 ~ 100만	17	11.7
100만 이상	2	1.4

2) 부로일러 부화업자

부로일러 부화업자는 187호로 전체의 47.6% 이다.

77년의 181호 보다 6호가 증가하였다. 전년대비 103.3%의 신장으로 산란계 부화업자가 20% 감소한데 비하여 3.3%증가 한 것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규 모 별	호 수	구 성 비	비 고
2만란미만	4 호	2.1%	규모불명 1 호
2~ 5만	9	4.8	
5 ~ 10만	21	11.2	
10 ~ 20만	45	24.1	
20~50만	68	36.4	
50~100만	33	17.6	
100만이상	6	3.2	

3) 산란, 육용 겸용 부화장

겸용 부화장은 61호로 전체의 부화업자의 15.5%이며 77년의 57호보다 4호 신장을 증가하여 107.0%의 보이고 있다.

부로일러 부화업자가 산란용 종계를 일부 인식하므로써 4 호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규 모 별	호 수	구 성 비
2만란 미만	2 호	3.3%
2 ~ 5 만	4	6.6
5 ~ 10만	5	8.2
10 ~ 20만	11	18.0
20~ 50만	24	39.3
50~ 100만	9	14.8
100만 이상	6	9.8

4) 휴업부화장

휴업 부화장은 29 호이며 불명확한 부화장의 8호와 가동부화장 393호를 합하여 430 호의 부화장이 되어 휴업율은 6.7%가 되어 77년도의 휴업부화장 36호와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5) 경영 주체별 부화장수

산란계 부화장의 경영주체별로 보면 회사 경영이 84호(57.9%), 개인 경영 41호(28.3%) 전문 경영이 7호(4.8%) 농협 연5호(3.4%) 종합 농협 2호, 농사조합법인 1호 기타 4호로 되어 있다.

부로이러 부화장을 경영주체별로 보면 회사 경영 135호(72.2%) 개인 31호(16.6%) 전문 농협 7호(3.7%) 종합농협 5호(2.7%) 농협연, 농사조합법인이 각 33호 임의단체 2호 기타 1호로 되어 있다.

6) 취급 종계별 부화장

외국계를 취급하는 부화장이 302호로 76.8%를 차지하며 국산종계는 61호로 15.5%를 점하고 있으며 외국계 국산계를 다 같이 취급하는 부화장은 23호로 5.9%이며 불명이 7호 이다.

산란계 부화업자중 외국계 취급 부화장은 93호로 64.1%, 국산계 46호로 31.7%, 양쪽을

다 취급하는 부화장은 6호로 4.1%이었다.

부로이러 부화장은 외국계 취급 부화장이 170호로 90.9%, 국산계 9호로 4.8%에 불과하며 양쪽 다 취급하는 부화장은 2호로 1.1%, 불명이 6호 이었다.

지역 종계장이 있는 부화장이 309호로 78.6% 산란계 부화업자는 120호로 82.8%, 부로이러 부화업자는 138호로 73.8%, 겸용부화장은 51호로 83.6%가 지역 종계장을 갖고 있다.

중계 수수의 동향

중계 수수는 총 842만 2,161수로 77년의 874만 5,323수에 비하면 96.3%로 감소하였고 성별로 보면 우은 760만 3,200수로 77년대비 9.3%, 송은 81만 8,961수로 77년대비 12%가 감소하였다.

산란종계는 104만 9,690수로 전년대비 87.0%, 우은 95만 5,303수로 전년대비 87.1%, 송은 9만 4,381수로 85.2%로 송의 감소가 눈에 띈다.

육용종계는 411만 7,804수로 전년비 106.6%, 우은 370만 0.279수로 전년비 107.2%, 송은 41만 7,525수로 전년비 101.5%로 자웅 비율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월간양계 합본 판매중

78. 6~78. 12

79. 1~79. 6

문의는 ② 6917